

석가모니와 그의 후계자[四]

철학박사 백성욱

當時 學者의 생각인즉 印度에 있어서 □이 種으로 分하리니 (一) 問題를 모
아가지고 일□으로 自修하며 또는 他를 教授함에 從事하였나니, 마티 우리 半
道로말하면 유림, 西洋으로 말하면 希臘의『아카데미아』(Academia)『김나시움』
(gymnasium)『리세움』(Lyceum)나 相似하였고. (二) 오죽 □居하여 無限한 苦
楚를 忍受하여 육체의 營養까지 도라 보지 아니 하였나니, 後者는 現今 印度
에서 볼 수 있는『파킬』(Fakir)의 先祖라 하겠다. 그래서 太子의 修養 方式인즉
外面으로 보아서는 後者와 彷彿 하였슴으로 前記 吾人에게 歡迎을 받게 된 것
도 무리가 아니다. 이유인즉 當時 印度 思想이 淸貧의 學者를 더 尊敬하는 風
俗이였다.

六

이와 가티 □□한 생각을 하게한 태자인즉, 그의 육체적 □□이야 참으로 □
□할 수 업섯나니, 그의 後繼者 들의 記錄에 依하여 잘 안다. 例하면 六年을
靜坐 하는 中間에 □□이 넓적다리를 돌코 나갓다거나, 또는 六年之間 理變의
□□가 업시 고목과 가티 靜坐 하는 中間에 鳥□이 그의 머리 위에서 作□하
였드라는 傳記는 숨김 업시 그의 形狀 當時에 如何하였던 것을 說明한다. 이
상은 普通 心理學上 經驗으로나 또는 □□生活에 있어서도 짐작할지니, 普通
學者 生活을 보더라도 적으나 만으나 그의 □력을 學術에 있어서 家事에 소홀
함으로 內主掌이 되고 衣服의 □□을 이저바리기 쉬웁거늘, 況重大한 苦行에
苦心하게된 太子 一家! 그런즉, 太子의 苦行인즉 苦痛으로 印度에 있어서 볼
수 있는 苦行을 爲하여 苦行하는 □□□가 아니요. 研究에 熱中 함으로 이저
바렸던 것이 事實이니 例하면 □자가 成道後 만흔 方面에 質問을 받는 중 □
□의 苦行學者가 와서 甞기를 『나는 一生에 糞(□)을 먹었스니 死後에 무슨

□果를 받겠느냐?』할 때에 聖子は 서슴지 아니하고 答하기를『그대는 일생 쫘(□)을 먹었스즉 개(犬)가 되겠다.』고 하고, 달흔 苦行者가 그의 一生에 풀(草 □)을 먹었다. 함에 對하야는 소(牛)가 되겠다. 對答하얏나니, 오즉 內習에 依하야 未來를 定함이요. 苦行인즉 無意味한 것을 □示하였다. 이것만 보아도 당시 太子의 故意가 苦行에 잇는 것을 알린 것이 明白하다.

最後에 잇서서 六年 만에 태자는 突然히 몸을 일으키며 압내[앞내]에 沐浴하고 또 □近□收場에서 太子의 起動을 神奇히 역이여 올리는 牛乳를 收女로부터 바다서[받아서] 먹으면서 육체는 □□하였나니, 그는 생각하기를 無理의 苦行이 精神의 □□□□□뿐만 아니라 肉體가 업고는 超越를 達하고자 하는 本意가 아니라 생각 하였던지 如何간 육체를 □□하면서 修行에 熱中하였다. 他一面으로 남의 속을 야속히도 물으는 吾人은 이와 가티 突變하는 太子의 態를 보고 그는 □功□□을 一時에 研□하는 愚人이 아니면 魔의 所使라 하야, 太子를 바리고『베나레쓰』가고 말었다. 그러나 多情한 太子가 엇지[어찌] 이것을 몰랐스리요마는, □□에『내일 밥 바한데 男』으로 자기의 □□□ 一分을 □□할 수 업는지라, 오죽 □□ 중에서 그들을 보냈을 뿐이다. 이와 가티 沒知覺한 □□처럼 熱中 하던 태자는 □□(심이월 팔일 □□) □□□□인『一切唯心造』라는 眞理 □□□하였다.』佛(覺)性이 全宇宙를 通治하였다 함이다.